

면접 평가의 본질과 합격 전략



지 상 범 역
입시 토크

◆수시 지원 마감 이후 수험생이 주목해야 할 면접의 실질적 영향력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된 지금 고3 수험생의 시선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과 다가오는 면접고사로 향해야 한다. 대학 입학처가 면접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본질은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과 수험생의 잠재적 학업역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시 모집에서 면접의 반영 비중은 표면적인 비율 이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1단계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서류 점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면접에서의 점수 차이가 최종 합불을 갈라놓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대학 입학처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면접의 유형별 특성과 구체적인 대비 전략을 깊이 있게 제시한다.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생활기록부 속 주도적 탐구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첫째, 서류 기반 면접의 핵심은 생활기록부 속 주도적 탐구 과정의 재구성이다. 입학사정관들이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실제 본인이 수행한 활동인가와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가다. 단순 사실 확인 질문에 단답형으로 응답하는 것은 감점 요인이

다. 입학처는 활동의 계기,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노력, 지원 전공과의 연계 스토리까지 요구한다. 따라서 주요 활동 계기를 명확히 정리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술 용어나 탐구 기록의 개념을 완벽히 복기해야 한다. 입학처는 화려한 스펙보다 자신의 활동을 깊이 고민하고 이해한 진정성 있는 태도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하는 장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 실시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의 본질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입증이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단순 지식의 양을 묻지 않는다. 생소한 지문이나 복잡한 상황을 종합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의 과정을 평가한다. 구상 시간 동안 답변의 뼈대를 만드는 구조화 작업을 선행하고 출제 의도를 파악해 두괄식으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면접관의 지적이나 꼬리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지적을 수용하며 논리를 수정 및 보완하는 유연함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은 완성된 학자가 아니라 학문을 탐구할 준비가 돼 있는 유연한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이다.

◆MMI와 상황 면접에서는 명확한 가치 판단과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

의약학계열의 MMI나 사범계열의 상황 면

접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인성을 측정한다.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딜레마 상황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 판단 기준을 제시하되 자신이 선택한 결정의 한계와 부작용까지 인지하고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상황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다. 대학은 정해진 규칙을 외운 학생보다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

◆두괄식 답변과 철저한 모의면접을 통해 실전 대응 기술을 완성하라

면접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려면 모든 답변을 결론부터 밝히는 두괄식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평가자가 핵심을 즉시 파악하게 만든다. 또한 면접관과의 자연스러운 시선 교환과 안정된 음성 톤을 유지하고 모의면접을 영상으로 촬영해 나쁜 습관과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 마지막 발언 역시 단순 감성적 호소가 아닌 지원 전공에 대한 열정과 학업 로드맵을 임팩트 있게 전달해야 한다. 면접은 자신이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증명하고 돋보이게 해주는 기회의 장이다. 서류를 철저히 해부하고 지원 대학의 면접 스타일을 완벽히 이해한다면 면접장은 합격을 확정 짓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공존(共存)과 병존(並存)



김 아 영
(자본시장부)

사회 구성원이 살아가는 방식은 공존(共存)과 병존(並存)의 형태로 나뉜다. 공존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교집합을 넓혀가는 것이라면 병존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되 각자의 영역에 머무는 방식이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움직임은 이 차이를 시장의 언어로 보여줬다.

지난 7월 코스피는 한 달 만에 22.19% 급락했다가 7월 31일 하루 만에 17.91% 급등했다. 이 기간 동안 서킷브레이커는 네 차례, 사이드카는 15차례 발동했다. 5월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몰리면서

특정 종목과 방향에 거래가 집중된 시기였다. 이후 시장의 진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는 8월까지 49차례 발동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6회를 넘어섰지만, 월별 발동 횟수는 7월 15회에서 8월 5회로 줄었고 이달 중순까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스닥 역시 7월 12회에서 8월 4회로 감소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6월 29일 최고 96.94에서 최근 44.24까지 내려왔다.

시장을 움직이던 자금의 규모도 달라졌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면서 6~7월 10조원을 웃돌던 관련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최근 급감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최근 6월 50조3471억원에서 7월 36조8755억원, 8월 25조8460억원으로 감소했고 이달 들어서는 21조8631억원까지 낮

아졌다. 거래를 줄이고 쏠림을 완화하자 시장의 변동성도 낮아졌다. 하지만 변동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달 14일 개장한 KRX 애프터마켓에서는 첫날 변동성완화장치(VI)가 1112회, 이튿날에도 858회 발동됐다. 애프터마켓은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고 가격제한폭과 VI를 적용했지만 개별 종목의 높은 변동성이 나타났다.

서로 다른 상품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 병존이다. 그 차이가 연결돼 한쪽의 충격을 다른 쪽이 받아낼 수 있다면 공존이다. 레버리지 상품의 쏠림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는 없다. 변동성을 없애는 시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판단과 자금이 충격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aykim@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8일 (음 8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육구를 앞세우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생 늦게라도 원하는 바는 이루어집니다. 72년생 전업이나 개업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84년생 일에 장애가 많아 초조한 마음입니다.



49년생 귀하에게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61년생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73년생 당신을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길러야 합니다. 85년생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입니다.



50년생 만족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갑니다. 62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74년생 상대는 귀하보다 한수 위입니다. 86년생 반드시 행운이 찾아 올 것입니다.



51년생 적당주의는 금물입니다. 63년생 조그마한 일에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75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87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52년생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64년생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76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88년생 목적의식을 가지고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53년생 큰 사고를 당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5년생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세요. 77년생 귀하의 운은 쇠퇴기입니다. 89년생 모든 일을 자제하세요.



54년생 흉한 인간 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하는 게 갑니다. 66년생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78년생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90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55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운입니다. 67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79년생 이곳 저곳에서 이익을 들이느라 바쁩니다. 91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56년생 큰 거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갑니다. 68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80년생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92년생 함께하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57년생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9년생 언행일치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81년생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93년생 반가운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58년생 단기간이지만 입원치료를 볼수해야 합니다. 70년생 전업은 길하지 못합니다. 82년생 부지런히 뛰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94년생 청산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59년생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71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83년생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95년생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긍정의 힘

위렌 버핏은 전 세계 부자들 중 '현인'(賢人)이란 칭호를 가졌다. 그런데 이런 위렌 버핏마저도 내놓고 존경한다며 칭찬한 인물이 찰스 멩거(CharlesMunger)다. 그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에 합류해 거물급 투자자인 위렌 버핏 회장의 오른팔로 활약했으며, 1924년생으로 버핏보다 6살이 많지만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다. 버핏의 유명세 보다는 약하지만 엄연히 가치 투자의 대가로 손꼽히며 성공한 투자자산가로서 그 위상을 안다. 버핏이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렸다면 찰스 멩거는 '패서디나의 현인'으로 불렸다. 버핏과 같은 오마하 출신이지만 패서디나에 거주했기에 붙은 별명인 것이다. 그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강조하며 1978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에 이사로 합류해 위렌 버핏과 함께 가치 투자로 대성공을 거두며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성공한 그도 개인적인 고뇌와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물론 고학력에 변호사란 직업을 가졌었으나 신참 변호사 시절이었던 젊은 시절에는 수입이 좋지 못했단다. 첫째 아들 테디 멩거가 8살에 소아백혈병에 걸렸는데, 치료비에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음에도 결국 1년 만에 사망하자 길거리에서 소리 내어 울었다. 자녀도 많았던 그는 '내가 좀 더 부자였다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회한이었다.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주저앉게 되는 크나큰 괴로움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연민은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섰다. 절치부심하며 경제적 독립을 위해 투자업에 발을 들였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도 종종 투자를 위한 종잣돈 마련까지는 하루를 졸라매는 내뺌을 요구하듯이 그 역시 그랬다. 그렇게 그는 종잣돈을 마련했고 가치 투자의 대가로 우뚝 섰다. 주저앉지 않고 일어난 긍정의 힘을 보여준 인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8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합형스도쿠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9	1	2	8	6	7	4
6	8	4	7	9	8	9	2	1
1	2	7	9	6	4	8	9	8
6	9	1	8	7	9	4	6	8
7	4	9	2	1	6	9	8	8
8	6	2	8	4	9	1	9	7
2	1	6	9	8	7	2	8	9
2	7	8	6	9	1	8	4	9
9	9	8	4	8	2	7	1	6

8	2	1	9	9	4	8	7	6
8	6	9	7	8	2	9	1	4
4	9	7	6	8	1	2	8	9
7	8	9	1	6	9	4	2	8
2	8	6	8	4	7	1	9	9
1	9	4	8	2	9	7	6	8
6	4	8	2	1	8	9	9	7
9	7	8	4	9	8	6	2	1
9	1	2	9	7	6	8	4	8